

第 8 回 兵庫県高校生韓国語スピーチ大会が 1 月 24 日に兵庫韓国文化教育院でありました。

兵庫県内の高校生 17 名が発表し、湊川高校からは 2 名が参加しました。

本校から出場した 4 年生の ロハス・トーレス・クラウディア・マティルデさんは「ハングルとの出会い」というテーマで発表し、銅賞を受賞しました。

スピーチ大会の様子と発表原稿を紹介します。



スピーチの様子



指導していただいた黄先生と方先生

発表原稿

한글과의 만남

미나토가와고등학교 4년 로하스 도레스 그라우디아 마틸데

저는 콜롬비아 출신입니다. 일본에 와서 겨우 4 개월이 지나서 미나토가와고등학교에 들어 왔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처음부터의 시작이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고등학교에서 4 년동안 많은 것을 배운다면 제 인생도 마칠 것이고 제 꿈도 꼭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모국어는 스페인어입니다. 일본말과는 글자도 단어도 문법도 달라서 이해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생활습관의 차이또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본어가 알 수 있게 되어 수업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듣기도 한결 나아져서 반 친구들이 농담을 하며 웃을 때 저도 같이 웃을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2 학년 때부터 한국어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한글의 모음 자음 받침등을 배워서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는 다음 수업이 더욱 더 기다려졌습니다. 한국의 생활 문화 역사도 배워서인지 점점 더 한글이 좋아졌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수학여행은 3 학년 때 서울로 갑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한국말을 써 보고 싶어서 시장이나 거리에서 마음껏 말을 걸어 보았습니다. 말이 통했을 때는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이 아주 매력적인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학년 때의 문화제에서는 한국요리인 김밥과 떡국을 만들어 제가 한복을 입고 팔았습니다. 무대 발표에서는 우리나라인 콜롬비아의 민족의상을 입고 다 같이 한국말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본과 한국과 그리고 콜롬비아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장래에는 대학교에 가서 법을 공부하여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사람들이 곤란할 때 도와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NGO 라고 하는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나라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의 나라말이나 문화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제일 먼저 한국과 한글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글을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ハングルと出会い

県立湊川高等学校 4 年

ロハス・トーレス・クラウディア・マティルデ

私はコロンビアで生まれ育ちました。日本に来て 6 か月後に湊川高校に入学しました。コロンビアで高校を卒業しましたが、一からのスタートで大変な気持ちでした。でも、日本の高校で 4 年間たくさんのことを学んだら、私の人生も変わるだろうし、きっと私の目標に近づくと思いました。

私の母国語はスペイン語です。日本語とは文字も単語も文法も異なり、理解するのにとても苦労しました。また、生活習慣の違いにも途惑いました。

しかし、だんだん日本語がわかるようになってくると、授業も少しずつ理解でき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聞き取りもよくできるようになり、クラスみんなが冗談を言って笑うとき、私も笑えるというのが何よりうれしいことでした。

湊川高校では、2 年から韓国語授業が始まります。ハングルの母音、子音、パッチムなどを習って読めるようになると、授業が待ち遠しくてたまりません。朝鮮の生活・文化・歴史も習って、どんどんハングルが好きになり、朝鮮のことに興味・関心が強くなってきました。

修学旅行は 3 年の時、韓国ソウルに行きました。今まで学校で習った韓国語を使ってみたいくて、市場や街中で思う存分話しかけてみました。言葉が通じたときは、とてもうれしかったです。私は、日本にいちばん近い韓国がとても魅力的な国であることを実感しました。

4 年の文化祭では、一日目の模擬店で韓国料理のキンパとトックを作り、チマチョゴリを着て販売しました。2 日目の舞台発表では、私の国コロンビアの民族衣装を着て、みんなと一緒に韓国語で歌をうたいました。日本と韓国と、そしてコロンビアの心が触れ合うことができて、とてもうれしく感じました。

私は湊川高校を卒業して、将来は大学の法学部で学び、日本で暮らしている外国人が困っているときに、法律的な助けができる仕事をするのが夢です。NGOなどで仕事をして、いろんな国の人とつき合って、その人たちの言葉や文化も学んで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私は、韓国とハングルに出会えて本当によかったと思います。これからもハングルの学習を続けていきます。